

당신의 직업이 병을 만든다

채인택 / 중앙경제 과학기술부 기자

『당신의 직업이 병을 만든다』이는 산업보건의 시조인 18세기 이탈리아 의사 라마치니에서 비롯된 금언이다. 1700년 출간된 그의 저서 「일하는 사람들의 질병」에서 그는 유해물질과 잘못된 작업자세를 직업성 질환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런 개념은 현대에도 통용된다. 작업장의 유해물질은 현재 산업위생학이 맡고있고 작업자세는 인체공학이 담당한다.

30년간 산업화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직업병이 나타났다. 그러나 극히 최근까지 직업관련 재해나 질병은 일부 특수근로자에게 국한된 것으로 인식되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심지어 직업병 자체가 일반 임상증세와 구별되기 힘든 점, 즉 어떤 질병이 나쁜 작업환경, 작업조건에서 기인된 직업성인지 라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분하기 힘든 점때문에 많은 직업병이 묻혀버리고 개인질병으로 다뤄진 점도 사실이다. 직업병이 아님을 업주가 증명하기 전에는, 직업병으로 인정토록 최근 규정이 바뀌었는데 그전까지는 자신의 질병이 직업병이라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했다.

그런데 최근 직업병에 대한 인식의 폭

이 갈수록 넓어지면서 많은 직장에서 직업과 관련된 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노사관계의 현안이 되고있다. 이런상황은 비단 생산직, 현장근무자에 국한되지않고 사무직, 전문직, 관리직, 내근직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무시무시하고 드문, 특수한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얻을 수 있는 질환이 직업병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과로로 인한 돌연사(과로사) 문제에서부터 사무실 실내공기문제, 근무환경, 근무시간, 근무형태(야근, 교대근무 등)에까지 일상적인 직업조건들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직업성」이라는 접두어를 붙일 수 있는 질병과 연관된다는 사고가 확산되고 있다.

과로사문제는 '80년대 중반이후 일본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있다. 세계 산업의학회에 참석한 일본대표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을 얻어 어느날 갑자기 사망하는 과로사를 일본내 최고의 보건문제로 보고했다.

주5일 근무에 보름에서 한달 정도의 휴가를 갖는 구미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않지만 일본과 비슷하게 일벌레가 많고 일이 팍팍하며 스트레스 해소책이 별로 없는 우리나라도 당연히 과로사 요구

의 환경이라는게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다. 실제 최근 들어 산재보상보험에 근무중 갑자기 사망한 과로사관련 보상신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보험료지급이 거절되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이고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근무환경이다.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의 공기관리는 기본이고 최근에는 화이트칼라들이 근무하는 대형건물내 사무실의 실내공기문제도 중요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벽지 등에서 생기는 클로로포름(기체), 방열재로 쓰이는 석면(먼지), 직접 또는 간접흡연, 건축재에서 생기는 방사성물질인 라돈가스 등은 각종 암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클로로포름은 백혈병, 석면은 폐암, 라돈도 폐암발생과 큰 연관이 있고 흡연은 폐암은 물론 거의 모든 종류의 암발생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기록되고 있다.

미국연구(히긴스연구)에 따르면 공기가 나쁠때 담배를 피거나 유해물질이 있는 가운데 담배연기를 마시면 각종 암과 호흡기질환 등에 몇배에서 몇십배 더 잘 걸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세균이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은 영양상태개선에 따른 저항력증가, 위생개선에 따른 효과, 약품 등 의료기술발달 등으로 해서 점차 주는 대신에 이런 유해환경이 세균을 대신하게 된 셈이다.

마지막으로 사무자동화, 컴퓨터사용 등에 따른 피해를 들 수 있겠다. 복사기의 검은 토너가루, 레이저프린트의 토너가루 등이 유해한 것은 일찍이 주장돼왔다. 최근에는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따른 직

“최근 직업병에 대한 인식의 폭이 갈수록 넓어지면서 많은 직장에서 직업과 관련된 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노사관계의 현안이 되고있다.”

업성 요통, 건통, 시력저하, 안질환 등이든바 VDT증후군이라는 신종 직업병까지 나타나고 있다. 전기제품 사용에 따른 전자기파 피해는 아직 실체에 접근도 못하고있고 따라서 예방방법도 모른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하면 근무장소의 물리적 환경과 함께 근무의 조건, 스트레스 등으로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병」이라는 공식적 관정이 날 정도는 아니라도 직업성 질환을 앓고 있다 하겠다. 하시라도 직업병으로 이어지든지 인식도 못한채 큰 병을 앓든지 심지어 사망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셈이다.

요즘 우리사회는 복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면서 건강, 보건, 환경 등 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이 크게 발달했다. 물론 그러한 문제도 갈수록 크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야 하겠지만 바로 개개인이 겪고있는 직업성 피로, 건강위해 등에 대한 관심부터 갖는게 더욱 절실한게 아닌가 싶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성과와 정부의 투자, 국민의 관심을 기대해본다.

내가 선택한 금연
우리가족 웃음꽃피네